





<그림 2> 집옥재와 앞마당. 뒤쪽에 보이는 담장 너머가 건청궁이다. (2010. 9. 8. 김란기)

우선 낭인들의 침입 경로를 추적해 보자. 위 그림(배치도)은 당시 일본영사 우찌다 사다즈치(内田定槌)가 외무성에 보고한 것이다. 시해사건 직후에 조사하여 보고한 기록에 포함된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하여 추적해 보자.

우찌다의 보고서에 의하면 낭인들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광화문을 통해 경복궁에 침입하였다. 그들은 흥례문 앞에서 서쪽으로 꺾어 근정전 왼쪽 회랑 바깥쪽을 지나 경희루 서쪽으로 돌진했다. 그리고 임숙문(臨肅門), 신거문(辰居門)을 통해 광림문(廣臨門)에 이르렀고, 그 문을 통해 현재 집옥재(集玉齋)의 앞마당에 도달했다. 곧바로 향원정과 연지의 뒤편에 있는 건청궁에 뛰어 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집옥재 앞이 넓게 비어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각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우라의 낭인들은 그 집옥재 앞을 지나 건청궁의 필성문(弼成門)과 남행각문을 통하여 거침없이 왕후가 거처하는 내궁을 겁범(劫犯)했다.



<그림 3> 건청궁의 북서쪽. 낭인들은 북서쪽 담장에 통나무와 사다리를 걸쳐 놓고 넘어왔다고 사바전은 기술했다.

## 민비시해 현장 건청궁 옥호루

이제 건청궁의 도면을 보면서 낭인들이 어떻게 민비를 살해했는지 살펴보자.

필성문과 행각문을 통해 들어온 낭인들은 장안당(長安堂) 앞마당을 통하여 곤녕합(坤寧閣)으로 몰려 들어갔고 함광문(含光門)을 통하여 들어온 무리도 곤녕합으로 밀고 들어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옥호루(玉壺樓)는 이 곤녕합의 맨 오른쪽 방이다.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이 옥호루에서 왕비가 살해되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사실적으로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하여 다른 묘사를 인용하기로 하자.

[일인들은 곧바로 왕과 왕후의 처소로 가서 몇몇은 왕과 왕태자 및 그 측근들을 붙잡았고, 다른 자들은 왕후의 침실로 향했다. 이에 궁궐 안에 있던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稷)이 달려와서 위험을 알렸고 왕후와 궁녀들이 잠자리에서 뛰쳐나와 달아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살해범들이 들이닥치자 이경직은 왕후를 보호하기 위한 일념에서 엉겁결에 두 팔을 벌려 왕후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의식적인 행위가 오히려 살해범들에게 그의 등 뒤의 여인이 바로 왕후임을 알려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sup>2)</sup>

전 세계가 식민지 쟁탈전의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동북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 그 옆의 또 다른 작은 나라가 식민지주의자들에게 재빨리 배워, 인접한 나라를 범접하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은 500년을 이어 온 한 민족이 그들의 국가 체제를 결국 잠시(1910-1919) 내어주게 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찌 보면 유교적 체제가 기독교적 체제에 잠시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이었을 수 있고, 서학(西學)과 난학(蘭學)이 공존할 수 없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거의 동시대의 시간 속에서 한쪽은 서학을 맞아 들였고 다른 한쪽은 난학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거의 유사하게 그것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했다. 서학을 맞이했던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풍토와 너무 이질적임을 알고 배척했으나 그런 풍토도 없고 의식도 없던 나라에서는 큰 이유도 없이 난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서학을 천주학과 묶어 배척한 것은 아쉽다고 해야 할까?

러시아가 남진정책을 취하면서 그들의 잇속을 채우려했지만, 영국이 거제도를 점령하면서 입맛을 다셨더라도, 청이 조공국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미련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끔직한 도발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러시아가 청진항을 조차하고, 영국이 거제도에 기지를 세우고, 청이 강화도에 장터를 열었다면, 누군가 꿈꾸던 영세 중립국의 그것을 얻었을지 모른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가정보다 더 극한 상황은 있었다.

[그리하여 이경직은 양팔이 잘리면서 죽었다.... 순간 왕후는 옥호루 아래 뜰로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혀 쓰러졌고, 살해범들은 왕후의 가슴을 짓밟으며 몇 차례나 거듭 칼로 찔렀다. 그리고 실수가 없도록 용모가 비슷한 궁녀까지 살해했다.]<sup>3)</sup>

2) 최문형.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6.8.15. (재인용. 문화재청.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 2007. 10. 18. 81쪽)

이쯤에서 사바찐이 목격하고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자.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갑자기 바뀌는 순간에 그 이해 당사자 중의 한 축이었던 러시아측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바찐의 기록을 영문으로 재작성한 기록의 일부분을 우선 인용해 보자.

## 사바찐의 보고서



<그림 4> 민비 시해 전후의 옥호루. 뒤에 관문각이 보이는 옛 사진. 관문각은 사바찐이 서울에 들어와 맨 처음 지은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1885년 이전이었다. 이 건물은 1901년 1월 이전에 헐려 그 자재 일부는 경운궁의 다른 건물을 짓는데 쓰였다.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 <한반도, 1901>에 수록 사진)



<그림 5> 고종이 1873년 처음 지은 건청궁이 헐리고(1907-1909) 일제가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미술관을 지었다(1939년 준공, 1998년 철거). 지난 2006년 문화재청에 의해 새로 복원된 건청궁은 옛 민속박물관을 헐어내고 지은 것이다. 옆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2010. 9. 8. 김란기)

[Suddenly, at five o'clock in the morning, we heard gunshots in the western palace grounds. Several Korean soldiers had placed logs and ladders against the palace wall, climbed over it, then penetrated the inner palace wall. At the very first shots, the guard patrols all fled, and most of the other palace guards followed suit. As the soldiers crawled over the wall and unlocked the gates for their co-conspirators, ... ]<sup>4)</sup>

사바찐의 민비시해사건 목격기록을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 <신동아>는 상기의 부분과 같이 전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신동아>의 기사가 사건 당시의 경복궁 여러 전각을 감안하여 다소 구체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바찐의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던 전각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점 등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다. 위 내용을 2002년 1월 <신동아>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새벽 5시경에 춘생문에서 조선군 무리의 큰 구호소리와 함성이 들렸다. 사전에 행동을 모의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몇 분 후에 추성문(秋成門) 쪽에서 총성이 들리고, 잠시 후 담을 넘은 일

3) 최문형. 같은 책.

4) 이 글은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의 Gari Keith Ledyard교수가 [Imperial Russian Legation, Seoul 1895, Telegram 211, Appendix VI]를 입수하여 1995년 10월에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표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필자는 앞서 사바찐의 이름이 혼란스럽게 불리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본인 폭도들이 궁궐경비병에게 발포하자, 경비병은 무기와 군복상을 벗어 던져버리고 초소를 떠나 어디론가 달아나버렸다. 추성문 쪽의 총성을 신호로 춘생문 쪽에서도 일본인 폭도들과 조선군 훈련대가 난입하기 시작했으며 광화문에서는 일본인폭도 5~6명이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었다. 이들은 경비병에게 몇 발의 총을 발사해 궁궐경비병을 도주시키고, 일본인고관에게 훈련 받은 조선군 훈련대가 궁궐 안으로 쳐들어오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sup>5)</sup>

<신동아>의 이 글에서는 ‘폭도들은 남쪽의 광화문, 동북쪽의 춘생문, 서북쪽의 추성문 등 3개의 문으로 침입했다’고 하여 번역문에 구체적인 문의 이름을 넣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일본 측의 기록에서 광화문 한곳으로 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사바찐의 보고서 내용으로 돌아간다.

[새벽 5시 궁궐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북동쪽 대문 너머로 누군가 큰소리(의미 심장하게)로 연설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 궁궐에는 원래 모두 1500명의 군인과 400명의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시경에는(4시 30분부터) 250명 ~ 300명의 군인들과 장교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윗제복을 벗어 던지고 총과 탄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 한 무리는 다 이 장군을 끌어들이 길 왼쪽으로 저희(외국인)가 머물던 숙소(양관인 관문각(觀文閣)인듯)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300명 정도의 사람들(군인들)에 이끌려(약 60~70걸음) 민 왕비와 조선의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곤녕합 남행각인 듯)으로 갔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민왕비 처소 마당에 두 개의 쪽문(청취문과 함광문인 듯) 옆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일본군인 5명과 장교 1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신설 조선군인(훈련대)들로 이루어진 한 소대와 기모노와 양복을 입고 있는 20 ~ 25명의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조선 여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창문 밖으로 (1.8m되는 높이에서) 던져버렸습니다.]<sup>6)</sup>

위의 인용 내용은 [문화재청.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에서 [이영숙 편저. <명성황후 시해사건 러시아 비밀문서>]의 사바찐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미 정리하여 수록한 전자의 문헌에 제시된 사바찐의 보고서 내용을 계속해서 쫓아가 보자.

[제가 왕비 처소 (곤녕합) 마당에 있는 동안 일본인들에 의해 창문 밖으로 던져진 여자들의 수는 10~12명에 달했습니다..... 왕이 평소에 외국인들을 접견하는 건물(장안당) 주위에는 8~10명의 장교들의 지휘 아래 100~150명 정도 되는 일본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일본 군들의 수와 또 그곳에 조선 고관들이 많이 서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여기에 왕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궁궐을 나왔습니다. 제가 민 왕비 처소(곤녕합) 마당에서 궁궐 남문(광화문을 가리키는 듯)까지 나오는 시간이 10~15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민 왕비는 5시 45분, 심지어 5시 50분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sup>7)</sup>

그런데 우리는 사바찐의 보고서가 한 종류가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차용된 위의 글들은 좀 더 길고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위 보고서 원문은 상당히 길고 사바찐의 입장이나 당시의 생각을 자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19쪽 분량이다. 그러나 보다 간

5) <신동아>(통권 508호). [자료발굴 | 베베르의 시해 보고서와 증언서]. 2002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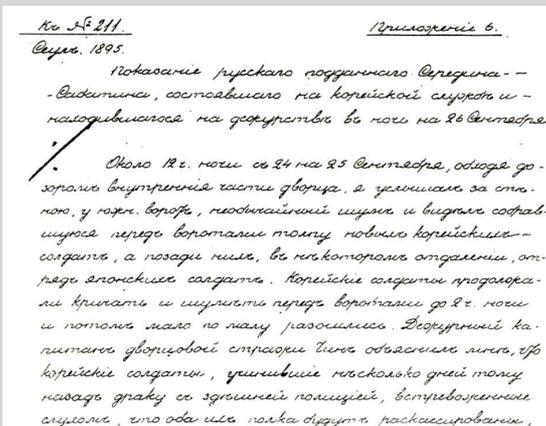
6) 이영숙 편저. <명성황후 시해사건 러시아 비밀문서>. 서림재. 2005. 10. 20. 80쪽. (재인용. 문화재청.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 2007. 10. 18. 80쪽.)

7) 이영숙 편저 앞책 같은 쪽. (재인용. 문화재청. 앞책 같은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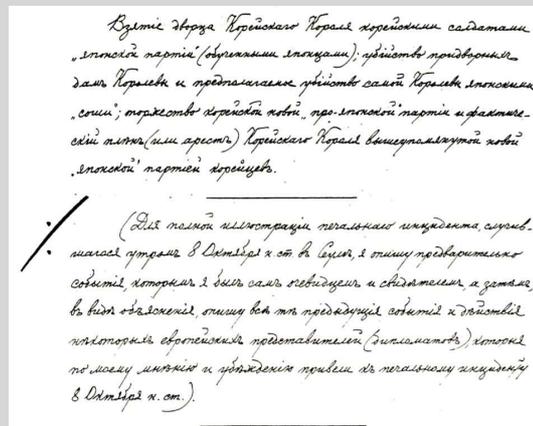
단하고 요약적으로 기술한 보고서가 하나 더 있다. 이 짧은 보고서는 5쪽 분량이다. 이 두 가지 보고서는 <이영숙 편저>의 저술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후자의 문서 기호는 [No.211 첨부6 서울. 1895]이다. 그러나 전자의 보고서는 문서 기호가 없다.



<그림 6> 장안당. 고종이 주로 외국인들을 접견했다. (2010. 9. 8. 김란기)



<그림 7> 사바젠 필체로 추정되는 러시아어의 요약된 [5쪽 보고서]의 첫머리.



<그림 8> 사바젠 필체로 추정되는 러시아어의 [19쪽 보고서]의 첫머리

그렇다면 후자 문서인 [5쪽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자.

[새벽 5시에 갑자기 궁궐 서쪽에서 총성이 들려왔고, 조선 군인 몇 명이 벽에다 통나무와 사다리를 세워 놓고 벽을 넘어 궁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초병들은 첫 번째 총소리가 나자마자 사방으로 달아났고, 왕실 경호 군인들도 거의 모두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군인들은 벽을 타고 넘어와 자신의 동지들에게 대문을 열어 주는 동안 다이(Dye)장군은 남아 있던 약간의 병사들을 집합시킨 후 궁궐 엄호를 위해 가까스로 그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남문과 북문을 통해 침입한 음모자들이 몇 차례 총을 쏘고 그 다음 일제 사격을 몇 번 감행하자 - 그들은 확실히 살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위협하는 목적으로 위를 향하여 총을 쏘았음 - 왕실 경호 군인들은 각각 흩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8)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낭인과 한국군 침입자들(일본군과 장교, 근위대, 훈련대)

8) 이영숙 편저. 앞 책. 45쪽.

이 통나무와 사다리를 건청궁 서쪽 담장에 걸쳐두고 그걸 타고 넘어왔다고 하였다. 초기에는 그렇게 침입하여 후에 문을 열었을 것이다. 건청궁을 지키는 보조병과 경호군이 있었는데 거의 모두 도망갔다고 하였다. 미국공사관 소속의 다이장군은 몇 명 남지 않는 보조병과 경호군을 모아 궁궐 엄호를 위해 배치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침입자들은 남문과 북문을 통해서도 들어왔다고 했다. 그들은 총을 쏘아댔으나 사람(경비병)을 맞추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경호군을 도망치게 하기 위하여 총구를 거의 하늘을 향하여 쏘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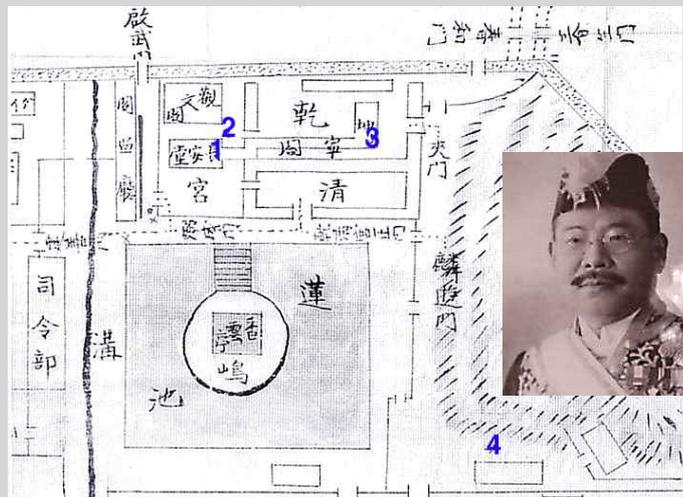


<그림 9> 건청궁 후면 서쪽 담장과 신무문. 건청궁 서쪽 담장은 경복궁 북쪽 담장으로 건청궁의 서측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2010. 9. 8. 김란기)

## 어느 기록이 맞을까? 슬며시 끼어든 일본측 기록

이와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전 사바전은 새벽 4시에 왕실 경호 당직(이학군)으로부터 궁궐 전체가 한국군과 일본군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것을 확인하였다. 다이장군과 함께 궁궐의 북서문(추성문으로 추정)으로 가서 일본군이 정렬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두 사람은 북동문(춘생문으로 추정)으로 가서 (일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조선 군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우치다 사다즈치(内田定槌)가 작성확인한 민비 살해의 장소와 과정. 장안당의 후면 우측 모서리 부분(1번)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장안당과 곤녕합 좌측 뒤쪽 관문각과 사이 마당에서 살해한 후(2번), (3번)의 옥호루 방안에 시신을 옮겼다가, 녹산의 남쪽(4번)에서 불에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다(일본 외비무성의교사료관). 우측 사진은 内田定槌.



사바전과 다이는 건청궁으로 돌아와 대책을 협의 하여했으나 당직실(관문각?)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벽 5시에 (일본군이 정렬해 있던)궁궐 서측에서 총성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여기서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저 위에서 <신동아>가 세 방향의 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그것은 사바찐이 쓴 보고서에 근거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바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군과 조선군이 궁궐의 북서와 북동에 각각 정렬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최초 총소리는 궁궐 서쪽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측 입장에서 쓴 우치다의 보고서는 광화문에서만 침입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과 조선군을 포함한 낭인들이 과연 광화문을 통해서만 침입을 했을까? 어느 쪽이 맞을까?

사바찐의 보고서를 더 읽어 보자.

[그들 중 일부는 다이(Dye) 장군이 있는 대문(?)으로 돌진했고, 나머지는 내가 서 있는 대문으로 달려들어 나를 끌어 들인 채 궁궐 안의 왕과 왕비의 처소(곤녕합)를 연결하는 문(초양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왕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다가 왕과 왕비의 개인 처소를 연결하는 문(함광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바로 사복을 입은 일본인 몇 명이 앞뒤로 뛰어 다니면서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곤녕합 마당)는 40명의 조선 군인들과 일본 장교가 서 있었고, 일본 군인 2명씩 2개의 문(함광문, 청취문) 옆에 서 있었는데, 하나는 공원으로 통하는 문(청취문), 다른 하나는 궁궐 내부로 통하는 문(함광문)이었습니다. 이 때 누가 나를 작은 목재 건물 밑으로 밀어붙였고,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계적으로 옆에 있는 판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나쳐 달려가 공원에 숨었습니다. 나는 민왕비의 처소에 일어난 극적인 일을 밖에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바찐의 보고서에서 침입자의 중심인물들은 일본군 장교와 그의 부하 몇 명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들이 궁녀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민비를 찾기 위해 날뛰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러나 사바찐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장면은 묘사하지 않았다. 특히 불특정인이 총을 쏘았다는 말은 해도 특정인이 칼을 휘두른 말은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인(예를 들어 일본인 책임장교 등)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림 12> 건청궁 초양문. 장안당과 곤녕합 사이의 문이다. 낭인들은 이 문을 통해서도 곤녕합의 옥호루로 침입했다. (2010. 9. 8. 김란기)

음모자들이 몇 차례 총을 쏘고 그 다음 일제 사격을 몇 번 감행하였다는 정도의 가해행위를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나는 민왕비의 처소에 일어난 극적인 일을 밖에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고 단언하여 그가 거의 모든 것을, 그 중에서도 ‘극적인 일’을 보았음을 기술하였다.

[(중략)... 한 무리의 일본인들이 궁궐 이쪽저쪽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다른 무리는 민왕비의 방을 습격하여 창문에 붙어 서 있던 여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어내어 무엇인가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의 이같은 절묘한 묘사는 당시 그가 처하고 있던 사정, 언제든 자기도 일본인들에게 살해될 수 있는 사정이 내포되어 방어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우치다의 보고서에 포함된 위의 두 가지 도면 중 하나에는 옥호루의 방 안에 ‘Queen killed here’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같은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면에서는 민비가 관문각과 곤녕합 사이에서 살해되어 옥호루로 시신을 옮겨 왔다고 했다. 이와같은 기술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우치다가 시신이 옮겨진 장소에서 살해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림 13> 일본영사 우치다 사다즈치(靑田定槌)가 작성하여 본국에 보고(1895. 12. 21, 靑田定槌機密第51달찰)한 기밀문서에 포함된 민비시해현장조사의 건청궁 배치도와 시해과정. 붉은 점선은 침입자들의 이동방향.



<그림 14> 복원된 최근의 건청궁 사진 위에 사건의 현장을 표시하였다. 민왕후의 시신은 곤녕합의 옥호루에 안치되었다가 녹산에 옮겨져 불태워졌다. (사진 : 문화재청.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

[나는 그 자리에 꿈작도 않고 선 채 일본인들이 민왕비 처소에서 저지르는 만행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한 궁녀를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낸 일본인 두 명이 여자를 데리고 작은 사다리를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건물에서 30피트(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던 나를 못 알아본 듯 그냥 지나쳐 뛰어 갔습니다.]

사바쥬의 보고서 기술과 우찌다의 보고서 도면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양쪽 보고서는 입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역사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동북아 지형의 변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 건청궁의 험난한 발자취

(계속)

본고는 미완성으로 인용을 삼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 9. 12.

김란기(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